

김정일 시기 북한 영화 및 TV드라마로 본 청년의 사회진출 양상과 함의*

A Study on the Social Advancement of the Youth through the North Korean Movies and TV Dramas

안지영(인제대 외래교수)

진희관(인제대 교수)

차례

- | | |
|------------------------------|-------------------------------|
| 1. 들어가며 | 의 청년 |
| 2. 청년의 사회진출 관련 작품 개관 | 3) 공명심 및 허영에 들뜬 여성 |
| 3. 영상으로 본 북한 청년의 사회진출 양상 | 4) 오만하고 자만심에 빠진 남성 |
| 1) 청년의 사회진출 경로 | 4. 나가며: 북한 청년의 사회진출 양상에 담긴 함의 |
| 2) 체제의 ‘옹호자’, ‘건설자’, ‘보위자’로서 | |

1. 들어가며

청년세대가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북한 사회에서 청년의 위상과 역할은 당국의 필요에 따라 매 시기 강조되어왔다. 특히 후계체제가 확립되는 과정이나 체제 위기가 가중되는 시기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 김정일 후계체제 시절은 물론이고, 김일성 사망 이후 1990년대 중후반에도 청년의 역할이 유달리 강조되었다. 2008년 말 김정일 이후 후계체제가 모색

* 이 글은 안지영의 석사학위논문인 『2000년대 북한 영화 속 일상생활에 나타난 여성상』(인제대, 2011)과 박사학위논문인 『김정일 시기 북한영화의 젠더 담론 연구』(인제대, 2015)의 일부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발표문 『김정일 시기 북한영화 속 청소년 형상과 젠더』(2015년 단국대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24회 전국학술대회)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되는 과정에서도 그러하였다.¹⁾ 2015년 현재 김정은 체제에서는 그 연령이 더욱 낮아져 아동 및 청소년의 위상을 강조하고 있다.²⁾

북한 청년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 ‘청년’, ‘새 세대’라는 범주로 진행되어왔다. 소학교 소년단 시절인 9세부터 청년동맹 가입 최고연령인 30세까지 청소년으로 포괄하여 초기에는 대부분 정치사회화 과정에 집중하여 분석하였다면, 90년대 이후부터는 생활상으로 초점이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특정 세대의 가치관 및 행태나 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새세대’의 변화 양상과 그 의미를 분석하는 추세이다.³⁾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북한 당국은 정권과 체제 유지를 위해 청년중시정책과 함께 청년에게 경제건설과 국방 등 중요한 역할을 부여해왔다. 그리하여 체제 유지에 청년세대가 크게 기여하고 있는 반면 청년들은 개별적 주체로서 새로운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해가는 과정에 있다.

한편 선행연구에서는 각 연구 주제에 따라 연령대 규정이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서 의무교육을 마치고 사회진출을 하는 시기인 중학교 졸업반부터 대학을 졸업하거나 군에서 제대하는 시기인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의 청소년 및 청년 세대에 주목하였다. 이 시기는 진로문제에 대한 고민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할 때이다. 특히 1990년대 중후반 체제

1) 진희관, 『Post-김정일시대의 후계구도 전망을 위한 문헌분석 연구-김일성시대의 후계구도와 비교를 중심으로』, 『안보학술논집』 20집,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1호, 2009.

2) 진희관, “점점 희미해져가는 ‘김일성’과 ‘김정일,’” 《시사저널》 1317호(2015). 필자는 올해 신년사에서 김정은 제1비서가 점차 자신의 체제를 공고화해나가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 세 가지 특징 중 하나로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강조를 두 가지로 풀이했다. 지도자로서의 자애로운 아버지상을 이미지화하려는 시도이며, 15년~20년 후 김 제1비서가 50대가 되었을 때 ‘후비대’가 될 수 있는 연령대를 감안했다는 것이다.

3) 관련 연구로 김래은, 『북한의 ‘새세대’ 특성 연구: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 청년층의 형성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이인정, 『1980년대 이후 북한 ‘새세대’의 가치 변화 연구: [청년전위]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민윤리교육과 박사학위논문, 2004; 임순희,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통일연구원, 2005; 임순희, 『북한 새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통일연구원, 2006.; 박아름, 『북한의 ‘새세대’ 일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조정아 외,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통일연구원, 2013 등이 있다.

붕괴를 우려할 정도로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은 북한에서 청년 및 주민들이 취업 및 직장생활에서도 어려움이 컸을 것은 당연하다. 이 시기 생존을 위해 북한을 떠나게 된 청년 및 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지원 관련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직업 및 노동 관련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와 관련한 북한 공식자료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 체험 연구가 불가능한 조건에서 북한 영화와 TV드라마를 자료로 하여 북한 청년의 사회진출 실태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⁵⁾ 북한 영화와 TV드라마는 북한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는 특히 북한의 제작 환경에서는 주체사실주의 원칙에 따라 추상성을 배제한 사실적인 묘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당 정책에 충실히 따르는 모습에 초점을 두면서도 대중 선동 및 교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긍정인물에 대비되는 부정인물의 묘사가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야 한다. 북한 영화 및 TV드라마를 통한 청년에 대한 연구로는 주민 교양 및 일상적인 삶을 분석한 전영선⁶⁾과 가족멜로드라마로 세대갈등을 포착한 이명자⁷⁾, 여학생의 생활을 연구한 안지영⁸⁾,

4) 이요행,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의식 및 직업지도 실태: 북한이탈주민의 효과적인 직업상담을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2002; 편송경, 『북한이탈청소년의 진로의식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박정란, 『여성 새터민의 직업가치와 진로의사결정과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오성배 외,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연구』, 3.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강일규 외,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자적 인정자의 직업경로 실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외 다수. 그 외 북한의 노동 관련 문헌은 최종태·김강식, 『북한의 노동과 인력관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김준성, 『북한의 직업, 전망과 남북한 직업 비교』,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07 등.

5) 이러한 내용으로 박금주, 『북한 중등학생의 진로결정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최귀옥, 『북한출신 대학생의 직업세계 인식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여성인적자원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정은찬, 『북한의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등 참조.

6) 전영선, 『북한 사회의 정체성과 북한 영화: 청소년 영화와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Vol.28, 한국언어문화학회 편, 2005; 『북한영화 속의 삶이야기』, 글누리, 2006.

7) 이명자는 청소년에 포커스를 맞추지는 않았으나 작품 속에서 신구세대 갈등과 함께 가부장적 젠더 차별이나 출신 및 가족 배경에 따른 계급 차별의 현실이 드러나는 지점을 밝혀냈다. 이명자, 『북한

청년 과학자 형상과 청년동맹에 주목한 정영권⁹⁾ 등이 있다. 이들 연구들은 북한 영화가 정치선전예술이므로 실상을 파악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고 영화 이면의 사회 현실을 포착해냈다.¹⁰⁾

본 연구는 청년의 사회진출에 관한 사회상과 실상에 대해 영상을 통해 좀 더 생생하게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정일 집권 시기인 1996~2011년 시기에 제작된 북한 영화와 TV드라마¹¹⁾ 중 청년들의 사회진출 양상이 비교적 잘 담겨있는 작품을 통해 그 실상을 유추하고자 하였다. 김정일 시기 제작된 영화 및 TV드라마는 총 357편으로 확인되며, 그 중 내용을 확인한 작품이 267편이다.¹²⁾ 본 연구를 위해 주요하게 참고한 작품은 총 86편이다(표 1) 참조).

정권 세습과 함께 체제 붕괴를 우려할 만큼 큰 위기를 겪고, 또 그것을 극복해낸 김정일 시기 북한 영화에서는 당국이 청년세대에게 거는 기대

-
- 영화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북한 영화와 근대성: 김정일시기 가족멜로드라마』, 역락, 2005; 『〈우리집 문제〉를 통해서 읽는 북한 중산층의 제2사회』, 『통일문제연구』 Vol.19, No.2, 평화문제연구소, 2007;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영화에 나타난 혁명적 낭만주의와 리얼리즘의 긴장관계: 〈녀병사의 수기〉, 〈한 녀학생의 일기〉의 고백의 내러티브 전략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Vol.31 No.3,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영화로 만나는 남북의 문화』, 민속원, 2009.
- 8) 안지영, 『2000년대 북한영화 속 일상생활에 나타난 여성상』,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9) 정영권, 『2000년대 초반 북한 영화와 청년세대 - 청년 과학자와 '청년동맹' 형상화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34권 1호,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15.
 - 10) 전영선, 이명자 외에도 정재형, 서정남, 서곡숙, 김선아, 정영권 등 2000년대 이후 북한 영화 연구자들은 일반영화를 분석하는 보편적 시각으로 접근하여 작품성 및 북한사회의 실상을 도출해냄으로써 그 특징과 양상을 통해 의미 있는 변화들을 읽어내고 있다.
 - 11) 여기서는 우리의 극영화에 해당되는 북한의 '예술영화'와 TV드라마에 해당되는 '텔레비존극, 텔레비존연속극' 등을 함께 분석하였으며, 편의상 본문에서 '북한 영화'로 통칭하기로 한다. 장르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북한 영화 및 TV드라마가 정치선전예술로서 주민들의 사상교양을 목적으로 하여 단일 TV매체인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영된다는 점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도 영화와 TV드라마를 특별히 구분하여 서술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년감』과 『조선문학예술년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예술영화를 서술하는 비중이 훨씬 높기는 하나 예술영화와 TV극을 함께 다루고 있다. 그만큼 장르 분화가 선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목이 너무 길어지는 것을 우려하여 장 및 절의 제목에서는 '영상'으로 통칭하였다.
 - 12) 관련 영화 정보는 다음을 참조. 전영선·이명자 외, 『북한영화 종합정보망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1. 2000~2006년 북한 영화 및 텔레비전 드라마 정리』, 영화진흥위원회, 2007; 안지영, 『김정일 시기 북한영화의 젠더 담론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와 우려가 잘 나타난다. 특히 2000년대 초중반에는 다수의 작품을 통해서 진로 선택 및 사회진출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양상이 비교적 비중 있게 묘사되고 있다. 여기서는 당국의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충실히 따르는 '이상적'이고 체제 순응적인 청년상보다는 그에 대비되는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 좀 더 보편적이고 현실적인 청년상에 주목하였다. 이를 다시 여성과 남성이 가지는 특성으로 나누어 파악하고자 하였다. 청년들의 다양한 진로 선택 유형은 사회구조적 요인에 대응하는 청년의 직업관과 생존 전략이라는 점에서 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표 1〉 북한 청년의 사회진출 관련 분석 작품¹³⁾

1995	1996	1997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8	2009	2010	2011
근위 병의 아들들 (4.25)	노래여 너와 함께 (조선)	7련대의 아들 2부작 (조선)	멀리 있는 섬 (조선)	군관의 안해들 (4.25)	기다리는 처녀 (조선)	고향의 편지 (조선)	녀병 사의 수기 (4.25)	그는 대좌 었다 (4.25)	(내 고향의 바다) (평양)	그가 남긴 사진 (4.25)	군항의 부름 소리 (4.25)	백두의 불나무 (조선)	복 받은 대지 에서 (조선)	성강의 파도 2부작 (조선)
녀인 의 손 (조선)	위훈 의 길 (조선)	(먼 후날의 나의 모습) (조선)	출기는 뿌리 에서 자란다 (조선)	달려서 하늘 까지 (조선)	복무 의 길 (4.25)	구봉령 일가 (조선)	높이 나는 새 (평양)	기다려 지는 사람 (조선)	민들레 꽃다발 (조선)	높은 교단 (4.25)	그날의 중위 (4.25)	생명선 (조선)	(설총 경) (조선)	우리 녀자축 구팀 5부작 (TV)
렬차는 정시로 달린다 (평양)	기다리는 아들 (조선)		붉은감 2부작 (TV)	령장 없는 병사 (조선)	소중히 여기라 (조선)	그가 걷는 길 (4.25)	로병들 (조선)	나의 스승 (4.25)	봄향기 (조선)	한 녀학생 의 일기 (조선)	병사의 모습 (4.25)	(사랑 의 권리 8부작) (TV)		
병사를 사랑 하라 (조선)			(소년 유술 강자) 4부작 (TV)	푸른 건강 (조선)	우리 정치 위원 (4.25)	그들은 제대 병사 었다 (조선)	사랑의 거리 (조선)	먼 산의 노을 (4.25)	따뜻한 우리집 3-4부 (TV)	수업은 계속 된다 8부작 (TV)	우리를 지켜 보라 (4.25)	(사랑 의 샘 3부작) (TV)		
청춘의 제복 (조선)				현연기 (조선)	(제1 바이 올린 수) (조선)	발걸음 (4.25)	우리의 향기 (조선)	붉은 열매 (조선)		행복은 어디에 1-2부 (TV)	저 하늘의 연 (조선)			

13) * 괄호 안의 제목은 관람을 못하고 즐겨리만 파악한 작품을 표시한 것이다. 1999년에는 사회진출 관련 주요 작품을 발견하지 못했고, 2007년에는 〈강호영〉이라는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만 확인된다. * 제목 뒤의 괄호는 제작사를 이른다. 각각 (조선)은 '조선예술영화촬영소', (4.25)는 '조선

1995	1996	1997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8	2009	2010	2011
청춘 이여 (조선)				옥류 동경 2부작 (조선)	갈매기 2부작 (조선)	불빛 (조선)	어머니 의 행복 (조선)	시대는 축복 한다 (조선)			정든 나의 집 (4.25)			
젊은 시절 8부작 (TV)				우리 요리사 2부작 (TV)	어서오 세요 2부작 (TV)	세대의 임무 (조선)	철령의 대대장 (조선)	오늘의 10명 당원 (조선)						
로병의 유산 9부작 (TV)				우리 이웃들 2부작 (TV)	청춘의 자서전 (조선)	이어 가는 참된 삶 3부작 (조선)	청년들 을 자랑 하라2 부작 (조선)	존엄 (조선)						
					축복합 니다 2부작 (조선)	고향 산천 2부작 (TV)		따뜻한 우리집 1-2부 (TV)						
						담찬 치녀 2부작 (TV)		새로운 치녀 인수원 2부작 (TV)						
						엄마를 깨우지 말아3 부작 (TV)								

2. 청년의 사회진출 관련 작품 개관

북한 영화는 김정일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1970년대 수령형상영화 등을 통해 수령유일지배체제 및 후계체제를 수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80년대는 영화촬영소별로 설립된 여러 창작단에서는 부정부패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과감하게 취급하고 드러냈다.¹⁴⁾ 그러나 소련 및

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 (TV)는 '조선중앙텔레비죤', (평양)은 '평양연극영화대학 청소년영화창작단'으로 줄인 것이다.

14) 자세한 내용은 이명자, 『북한영화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참조.

동유럽의 붕괴와 김일성 사망이라는 악재 속에 김정일 지배체제로 이어진 1990년대 북한 영화는 식량난에 쓰러져가는 주민 등의 현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고 부정적 형상의 비중은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극심한 체제 위기를 극복한 북한 당국은 2000년 이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강성대국 건설'을 제시하고, '실리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전향적인 개선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는 북한 영화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시기 청소년 및 청년들이 주연으로 등장하는 작품은 대부분 '성장영화'로, 부정적 형상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작품에서는 부모나 당 간부 등 모범적 인물들과 대립하고 갈등하는 양상들과 청년들의 부정적 형상도 비교적 잘 드러난다.¹⁵⁾ 그러나 상대적으로 2007년 이후 북한 영화는 부정형상의 비중이 줄어들어 보수적으로 회귀하였다. 2009년 이후 2015년 현재까지 제작된 작품들은 전반적으로 2000년대 초중반 작품에 비하면 부정적 형상의 비중이 매우 약화된 경향을 보인다.¹⁶⁾

이 글에서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작품은 우선 북한 청년의 사회진출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표 1〉 참조). 좀 더 다양한 분야 진출을 소개하기 위해 사회 초년생이거나 다른 작품에서 소개되지 않은 분야일 경우도 포함하였다. 청년의 사회진출을 비중 있게 다룬 작품은 〈표 2〉와 같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북한영화가 당국의 경제 및 노동정책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처럼 등장인물 중 청소년 및 청년들은 해당 시기 강조되는 분야로 특정한 재능을 가지고 있거나 전망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체육 및 예술계와 과학계 인재가 강조되는데 이는 체제 개선을 시도하던

15) 이와 관련하여 소설을 중심으로 북한 청년의 부정적 형상을 포착한 연구도 있다. 임순희, 앞의 책: 임옥규, 『2000년대 북한 문학 감성과 새 세대의 감수성』, 『현대북한연구』 17권 2호, 북한대학원대학교, 2014.

16) 2006년 이후부터는 제작 편수가 급감하였다. 2007, 2008년에는 각각 1편, 6편 가량 제작되었는데 군사영화가 대부분이며, 군관 및 병사들의 생활을 다루었다. 2009년 이후는 청소년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둔 작품들이 몇 편 제작되었다. 김정은 시기 들어서는 제작되는 작품이 매우 줄어드는 추세이며 관련 작품을 찾기 힘들다.

〈표 2〉 청소년의 사회 진출 양상 및 초년생 시기를 형상한 작품

제작 연도	제목	개요
1996	노래여 너와 함께	평양음악무용대학을 졸업한 주인공 서인주가 광산으로 현실체험을 나가 젊은 광부들과 어울리면서 그 충성심과 열정에 감화된다는 내용.
	우리 새세대	평양 고려호텔에서 일하던 혜순과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던 만식이 청춘의 열정으로 협동농장에 자원하여 경험부족으로 좌충우돌하면서 적응해가는 과정.
1998	줄기는 뿌리에서 자란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편부슬하에서 자란 승철이 폭력조직 두목으로 반항적 생활을 하다 노동단련소에 다녀온 뒤 돌격대 영웅이 되는 과정.
	소녀유술강자 (TV, 4부작)	16살의 유도 신예 계순봉이 국가대표선수가 되어 힘들게 훈련하여 메달을 따는 과정.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계순희 선수의 실화)
2000	달려서 하늘까지	성옥이 고된 훈련, 패배의 경험을 극복하고 금메달을 따는 과정 (1999년 9월 29일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자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정성옥 실화. 노동신문 사설에서 정선수를 '민족의 장한 딸'로 호칭하며 '정성옥 따라배우기' 호소)
2001	복무의 길	군인가정의 외동딸이면서 평양의학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한 재원인 여성이 군에 자원한 이후의 성장기
	어서오세요 (TV, 2부작)	연구원이 되길 바라는 아버지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사육공으로서 모범적으로 역할을 수행해나가는 여성의 성장기
2002	이어가는 참된 삶 (2부작)	영웅인 부모의 유복녀로 태어난 광옥이 사회 진출 과정에서 가족과 갈등을 겪고 가출하지만 부모의 대를 이어 식량난 해소에 기여할 유전학박사로 성장.
	고향산천 (TV, 2부작)	초모심사에서 탈락한 남성이 고향의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군인의 자세를 익히고 성장하여 입대한다는 내용
	살비를 잡아라 (TV, 2부작)	씨름선수가 되려는 아들이 레슬링선수로 키우고 싶어 하는 아버지와 갈등하는 과정과 성장기
2003	어머니의 행복	다섯 아들을 둔 어머니가 위로 세 아들을 훌륭한 군관으로 키운 후 방황하는 넷째와 소아마비로 장애가 있는 다섯째 아들도 군인으로 키워내는 과정
	청년들을 자랑하라	사회의 각 부문과 분야에서 청년돌격대로 자원해서 청년영웅도료를 건설하는 청년들의 성장기
	녀병사의 수기	도시 태생의 막내딸 향순이 위전 산골초소에서 병사생활을 시작하면서 겪는 갈등과 성장기

제작 연도	제목	개요
2004	나의 스승	중학교 교원인 연희가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안변청년 발전소 물길굴 공사장에서 일하는 제자들을 찾아가 그들이 바로 혁명적 군인정신을 지닌 사회의 스승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내용
2006	높은 교단	인민군대의 지휘관을 양성하는 군관학교 교원인 주인공 엄충길 이 제자들을 성장시켜 가는 과정
	한 녀학생의 일기	'기자'와 '과학자'를 놓고 고민하던 중학교 졸업반 여학생이 국가에 충성하는 부모의 진심을 깨달으면서 이과대학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
	수업은 계속된다	중학교 교사가 졸업반인 제자들과 함께 고치농장으로 자원 진출하여 농장생활을 하면서 통신대학과 입당의 과정을 함께 해나가는 성장기
2008	병사의 모습	군대에 갓 입대한 병사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는 개인적인 지향으로부터 동료들을 구하고 희생되기까지의 성장기
2009	백두의 불나무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고립무원의 백두산 혁명전적지 강사로 지원한 여성의 성장기
	사랑의 권리	석탄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 1만8천 미터의 탄광을 개발하는 청년동맹 돌격대로 전국에서 탄원한 청년동맹원들의 성장기
2011	우리 여자축구팀 (TV, 5부작)	2006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FIFA U-20 세계여자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선수들의 성장기

2000년대 초중반과 김정은 집권 시기 들어 더 두드러진다.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조건에서 체육 및 예술계 인재를 통해 민족주의와 국위 선양을 도모하고, 과학계 인재를 통해 국가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북한 영화 중 청년의 사회진출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대표적인 작품은 〈한 녀학생의 일기〉와 〈수업은 계속된다〉이다. 〈한 녀학생의 일기〉에서는 중학 졸업반인 수련의 1인칭 시점으로 전개되며 진로에 대한 고민을 풀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수업은 계속된다〉는 8부작 드라마로 담임 교원이 주인공이지만 졸업반 학생들의 학교생활(1부),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며 겪는 갈등(2부), 농장에 집단 진출한 이후 자신의 특성을 살리며 진로를 개척해가는 과정(3~8부) 등이 잘 나와 있다.

이외에도 군 입대 과정이나 여타 부문에 진출하여 적응해가는 과정을 그린 <복무의 길>, <청춘의 자서전>, <너병사의 수기>, <이어가는 참된 삶>, <고향산천>, <어머니의 행복>, <시대는 축복한다> 등이 있다. 영화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으로서 우여곡절을 겪으며 당 정책을 훌륭히 수행해 나가는 일꾼이 되어가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 진로 결정과 관련된 대사나 회상장면에 주목하였다.

3. 영상으로 본 북한 청년의 사회진출 양상

1) 청년의 사회진출 경로

북한 청년들이 중학교¹⁷⁾를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하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뉜다(〈그림 1〉 참조). 일반적으로는 직장에 배치 받거나 일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으며, 직장생활을 하는 중에 통신대학을 다닐 수 있다. 결격사유가 없는 대부분의 남자는 군에 입대하게 되고 여성의 경우도 자원입대할 수 있다. 제대한 후에는 직장에 배치 받게 된다.

군대에 남는 경우에도 외진 군부대에 일반병사로 자원해서 남거나 군 관학교를 거쳐 군관으로 진급하여 장기 복무하는 것으로 나뉜다. 군 복무 중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는 정치대학에 추천받아 졸업하면 군대 정치지도원이 되거나 일반대학으로 추천받는 기회가 주어져서 제대하는 경우도 나뉜다.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상급교육기관인 연구원이나 박사원에 다시

17) 영화 제작 당시 북한의 교육 편제는 유치원 졸업 이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으로, 만16~17세에 졸업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2014년부터 11년에서 12년으로 의무교육 제도를 개편 중이다. 우리나라의 유치원에 해당하는 학교 전(前)교육 1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소학교 교육이 5년,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교육에 해당하는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가 각각 3년씩 총 12년의 의무교육 제도를 채택하여 점진적으로 개편되게 된다.

진학할 수 있다.

또한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경우 영재교육기관을 나와 해당 기관에 소속되기도 한다. 혁명가나 열사의 유자녀이거나 고위간부의 자녀인 경우 혁명학원¹⁸⁾에 다니는 혜택이 주어지기도 하는데, 이들의 진로 또한 위의 사례들 중에서 개인의 의지에 따라 다르게 묘사된다.

직업을 선택할 때는 각각 생업, 사회적 역할분담, 자아실현의 측면에서 신중히 고려¹⁹⁾되어야 하겠지만 북한 영화 속 청년들에게서는 사회적 의무가 가장 많이 표현된다. 또한 영화에서 청년들이 생업의 측면에서 직업에 대해 고민하거나 선택하는 경우는 보기 드물고, 오히려 자아실현의 측면이 주로 고려된다. 이는 영화의 기본 배경이 사회주의 계획경제 아래 당국에 의해 직장을 배치 받고 배급을 기본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그려지는 데서 기인하는 듯하다.

중학교 졸업 ➡	직장 배치 ➡	직장생활 (+통신대학)
		대학 진학
	군 입대 ➡	직장 배치
		장기 복무
		대학 또는 군관학교 진학
	대학 진학 ➡	직장 배치
		박사원 진학

〈그림 1〉 북한 청년의 사회진출 경로

18) 일반학교와는 별도로 운영되나 대체적으로 의무교육 기간인 유치원 상급반, 인민학교, 고등중학교까지의 11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생들은 항일혁명 과정이나 한국전쟁 기간 그리고 대남사업 과정에서 공을 세운 혁명가들의 유자녀들과 당·정 고위간부들의 자녀들이다. 성분이 좋은 사람들에게 입학이 허용되는 까닭에 혁명유자녀학원 출신들은 김일성종합대학 등 주요 대학을 거쳐 북한의 핵심적인 엘리트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혁명유자녀학원으로 만경대혁명유자녀학원·강반석혁명유자녀학원·해주혁명유자녀학원이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김옥자, 『만경대혁명학원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참조.

19) 정태윤, 『인간과 직업윤리』, 문경출판사, 1990, 341~345쪽 참조.

2) 체제의 ‘옹호자’, ‘건설자’, ‘보위자’로서의 청년

북한 당국은 청년들이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실한 충신, 효자’가 되어야 하며 ‘사회주의의 건결한 옹호자, 힘 있는 건설자, 믿음직한 보위자’가 되기를 기대한다.²⁰⁾ ‘사회주의강성대국’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북한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체제 발전 전략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정치에서는 ‘선군’, 경제에서는 ‘과학’을 앞세운 ‘실리’정책이다.²¹⁾ 그렇다면 구체적인 노동정책은 어떠할까. 영화를 통해서도 정치사상적 관점 견지, 국가주요부문 우선 배치, 정신적·물질적 보상이라는 세 가지 중심방향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청년들의 사회진출 즉 직장배치, 대학진학, 군 입대 등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원칙은 사상관점 견지이다. 특히 ‘혁명적 군인 정신’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 외 ‘민족제일주의’ 등도 보인다. 혁명적 군인 정신은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으로 제시된다. 이는 대표적으로 군인을 형상한 작품에서 많이 드러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작품 속 인물의 대사와 행위에 녹아들어 있다.

모든 근로자들이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워야……첨단과학기술의 요새도 점령할수 있고 경제강국도 건설할수 있으며 온 사회에 알뜰한 살림살이 기풍과 고상한 문화정서생활기풍도 세울수 있고 우리 인민에게 남부럽지 않는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줄 수 있다……(김정일선집 15권,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로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2003.1.29)

20) 김정일, 『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사상과 령도업적을 빛내여 나가자(1996년 8월 24일)』, 『김정일선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21) 경제난이 심각한 북한으로서는 현실적으로 경제정책이 중요하지만 체제를 위협당하고 있다는 의식이 매우 큰 상태에서 개혁개방노선을 강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내외정세도 이를 뒷받침해 주지 않는 실정이다. 이명박정부 들어서 남북관계는 악화일로에 있으며, 북미관계도 교착상태이다. 다만 북한의 교육지책을 보여주듯 최근 북중경제협력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는 다시 대중의존도 심화 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위 담화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일하기만 한다면 경제난도 해결되고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생활을 하리라고 낙관한다. 이처럼 영화에서도 수령과 장군님의 말씀에 따라 앞장서서 힘든 경제부문에 자원해 나르고(〈시대는 축복한다〉, 〈붉은 열매〉, 〈민들레 꽃다발〉 등), 고향 및 집단의 발전을 위해 힘쓸 수 있는 희생적 헌신성을 가져야 군에 입대(〈고향산천〉 등)하게 되고, 사회생활 또한 제시된 정책과 명령을 철저히 관철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민족제일주의와 관련해서는 정성옥을 비롯한 여성체육인들이 국가대표선수로서 민족적 열을 담아낸 요소로 국위선양을 하고(〈달려서 하늘까지〉, 〈옥류풍경〉, 〈갈매기〉 등), 과학적 성과도 국제적 기준을 뛰어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거나(〈봄향기〉, 〈존엄〉 등) 외국문물을 많이 접하더라도 김치연구사가 되고 민족 생활양식을 지켜내는(〈우리의 향기〉) 식이다.

둘째, 국가적으로 중요한 부문에 우선 배치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특징적인 것은 청년돌격대 모집이나 졸업반 학생들이나 제대하는 군인들을 ‘무리배치(집단배치)’하는 것이다. 청년군인을 비롯하여 청년돌격대원들이 정책적으로 제시되는 발전소, 고속도로, 양어장 건설 등과 감자농사, 고치농사현장 등에 동원되어 일하는 것, 제대군인들이나 고학력 졸업자들 또한 대학 진학이나 연구원 등 안정되고 편한 직장으로 배치 받는 혜택을 마다하고 그러한 현장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강조되는 것에서 알 수 있다(〈그들은 제대병사였다〉, 〈수업은 계속된다〉, 〈복 받은 대지에서〉, 〈성강의 파도〉 등 다수).

셋째, 보상에 대한 것이다. 위와 같은 정책을 구현하고 장려하기 위해 정신적·물질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거의 모든 북한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해당된다. 그 중에서도 사회진출 형상에서는 주로 부모들의 업적과 관련하여 영웅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거의 대부분이다(〈이어가는 참된 삶〉, 〈그가 남긴 사진〉 등). 이때 모순적인 것은 그런 자녀들이 다시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무장하여 보상과 혜택을 마다하고 희

생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영화의 주제라는 점이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북한 영화에서 기본적인 청년 형상은 당국의 노동 정책에 따라 배치 또는 자원하여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장군님 또는 부모의 뜻에 따라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부모의 직업을 대물림하거나, 돌아가신 아버지의 연구 과제를 이어서 수행해 나간다. 자신의 재능이나 적성을 포기하고 매우 열악하지만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선차적인 부문에 진출한다.

김정일 시기를 대표하는 통치담론은 ‘선군정치’이며, 문학예술도 ‘선군혁명문학예술’로 칭하게 된 사회적 배경도 청년의 사회진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배경이다. 예를 들면 2000년대 초중반까지 남성의 경우는 입대 전 초모(招募) 대상인 청소년이 주요 인물로 등장했다(〈위훈의 길〉, 〈고향산천〉, 〈어머니의 행복〉 등). 여성도 군의관으로 자원(〈복무의 길〉)하거나 중학교 졸업 후의 신병생활(〈너병사의 수기〉)이 그려지기도 했다. 이들은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교화되거나 영웅으로 거듭나는 성장과정을 표현한다. 후계자 논의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2007~2008년에는 군부대를 배경으로 한 군사영화들만 제작되었는데 이때 병사들인 남성 청소년들이 대거 등장하게 된다.²²⁾ 군관이 아닌 병사가 주인공인 〈병사의 모습〉에서 철민은 공명심에 실수만 연발하던 신병에서 결정적 순간에 아낌없이 목숨을 바친 영웅으로 자라난다.²³⁾

특히 주목받은 인물들은 체육계 및 과학계 인재와 청년들격대 청년들이었다. 북한 체제가 극심한 경제난과 체제 위기를 겪던 1996년과 1999

22) 2007년에 유일하게 제작된 영화는 한국전쟁 시기 영웅을 다룬 〈강호영〉이고 2008년 작품들은 〈군향의 부름소리〉, 〈그날의 중위〉, 〈우리를 지켜보라〉, 〈훈련의 하루〉 등이다.

23) 남성인물의 변화처럼 여성 군인에 대한 형상도 이와 비슷한 변화를 보인다. 2009년 이후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화되고 당을 정상화시키는 흐름 속에서 여성 군인도 비중 있게 등장했지만 신병 청소년은 가장 마지막이었다. 과거 전쟁 시기 경찰대원으로부터 정치군관, 그리고 신병 순이다. 한국전쟁시기 경찰조를 소재로 한 〈복두칠성〉에서 여성 대원 초연, 이후 〈우리 정치지도원〉(2010)에서 여성 부대의 정치지도원 은옥(초연, 은옥 둘 다 리월숙 배우가 맡았다), 〈들꽃소녀〉(2012)에서 여성 신병 정희와 장미가 나오게 된다.

년 국제무대에서 국위를 선양한 계순희(〈소녀유술강자〉), 정성옥²⁴⁾(〈달려서 하늘까지〉, 〈장군님을 그리며 달렸다〉)의 일화는 바로 작품화되었다. 개인보다 집단을 강조하는 만큼 대집단예술체조를 다룬 〈푸른 주단우에서〉로부터 여자축구선수팀의 실화 〈우리 여자축구팀〉도 제작되었다. 과학계 인재들에 대한 형상은 〈흰연기〉, 〈제1바이올린수〉, 〈세대의 임무〉, 〈봄향기〉, 〈생명선〉 등 다수의 작품이 해당된다.²⁵⁾ 농장으로의 집단진출은 〈수업은 계속된다〉, 〈복 받은 대지에서〉 등이 있으며, 청년돌격대에 자원한 청년 및 집단을 형상한 작품들도 각각 〈청춘의 제복〉, 〈청년들을 자랑하라〉, 〈나의 스승〉, 〈사랑의 권리〉 등으로 이어져 나왔다.²⁶⁾

청년세대 중에서도 청소년을 주연으로 하는 작품들이 양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특정 시기 특정 분야의 청소년들이 주목받아 온 이유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주로 이들은 긍정적 형상이기보다 부정적 형상이 더 두드러진다. 이는 결국 당국이 청소년을 보는 시각은 혁명의 후비대로서 기본적으로 교화의 대상이라는 점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권선징악의 전형적인 구도를 고수하는 북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김정일장군의 인정을 받는 최고의 정신적 보상과 함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물질적 보상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수령과 당이 제시하는 데로 열심히 따르면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메시지이다. 더 불어 강조하는 내용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이 그것을 마다하고 영웅적 희생정신을 발휘해 나간다는 것이다. 종합해보면 열심히 하는 만큼 보상이나 대가가 주어지지만 그 혜택을 바라거나 누리려 하지 말고 집단을

24) 특히 남북한을 통틀어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사상 첫 여자마라톤 우승자인 정성옥 선수는 1999.9 공화국영웅 칭호, 금별메달, 국기훈장 1급, 인민체육인 칭호를 수여받았다. 공화국 영웅 칭호는 국가보위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북한 최고의 칭호이며, 북한정권 수립 이후 체육인이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25) 평범한 소학교 소년들이 중심인물이었던 〈2학년생들〉(5부작, TV, 2002)의 경우도 과학계 수재들을 다룬 〈열두살〉(8부작, TV, 2003)로, 김정은 시기에는 〈소년탐구자들〉(TV, 2013)로 이어졌다.

26) 〈대홍단책임비서〉나 〈자강도사람들〉 등에서도 당 비서가 주인공이기는 하나 지역의 자령갱생을 도모한다는 내용에 따라 돌격대에 자원한 청소년들의 애환이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다.

위해 당국에 충성하라는 것이다.

이처럼 모두가 평등하고 공평한 이상사회를 지향한다는 북한이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자원으로는 주민의 노동력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차등적 보상을 통해 유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보상을 받은 이들에게 다시 희생을 독려하는 것으로 신분·계급적 차별에 대한 대다수 주민의 불만을 무마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현실의 어려움은 제국주의에 의한 것이고 자본주의는 ‘돈 밖에 모르고’ ‘노동자를 착취’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북한식 체제를 고수하기 위해, 특히 ‘청년’·‘군인’들은 수령을 ‘결사옹위’하고 당의 정책과 노선을 무조건 ‘결사관철’해야 한다.

그러나 청년에 대한 당국의 이중적 시각을 내포하듯 사회진출을 앞둔 중학교 졸업반 학생 및 청년이 주연일 경우 그들은 일관된 긍정인물이 아니다. 대부분의 작품에서 주인공이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고 사회주의 원칙을 체현한 긍정인물인 반면 청소년의 경우 부정인물로 시작하여 교화되는 성장기를 거친다.

탈북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그들의 고민과 인기 직업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출신성분과 집안배경, 진로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며, 무역 및 상업일꾼,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²⁷⁾ 이러한 선호도는 영화에서도 드러난다. 당국의 인재양성정책과 함께 주로 예술적 재능을 지니고 꿈을 펼치고자 하는 인물들과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낸 체육인들이 등장한다. 또한 대외부서에서 일하는 청년이 맞선상대로 선호되는 (<축복합니다>) 반면 외진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나 일반 공장 노동자나 농장원인 청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주위 사람이나 헤어지는 처녀들 (<먼 산의 노을>, <발걸음>)을 통해 생계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현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당국의 공식주장과는 상관없이 육체노동보다는 정신노동을, 즉 농장, 탄광, 공장 등 기술직보다는

27) 민성길, 『통일과 남북청소년』,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164-165쪽.; 박금주, 『북한 중등학생의 진로결정에 관한 연구』 참조.

연구원, 예술가, 체육인 등을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⁸⁾

경직된 사회구조 속에서 청년들은 '사회주의공화국의 참된 영웅'이 되기까지 신분(출신성분)·계급(부모의 직업이나 직위)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성·재능 등 개인의 조건과 특성에 따라 진출하고자 하는 욕구를 내보인다. 사회 진출 후 초년생 시절에도 자신의 경력을 위해 거짓열성을 부리거나 일시적 흥분에 들떠 집단진출하기도 하며, 대학에 가거나 학위를 따기 위해 부정한 방법이 시도되기도 한다.

3) 공명심 및 허영에 들뜬 여성

북한 영화 속 청년들은 생계유지 수단으로서보다는 오히려 자아실현의 측면에서 고민하는 모습이 더 많은데 특히 여성의 경우가 그렇다(〈이어가는 참된 삶〉, 〈기다려지는 사람〉, 〈한 녀학생의 일기〉, 〈수업은 계속된다〉 등). 여성들은 사사로운 공명심이나 허영에 들떠 사회진출을 결정하곤 한다. 여성 청년이 주연이거나 주요 인물일 경우 자신의 이름을 사회에 떨치고픈 소영웅주의적 공명심과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허영심이 표출되곤 한다.

남성들처럼 여성들에서도 선군시대 영웅에 대한 포부는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경심(〈복무의 길〉)은 다른 집처럼 '선군가정'으로 불리지 못하는 건 자신 딸이기 때문이라는 자격지심에 아버지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에 의학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도 자원입대하게 된다. 향순(〈녀병사의 수기〉)도 친구들처럼 내세울 전쟁영웅 할아버지가 없는 대신 자신이 스스로 영웅이 되겠다는 포부로 입대하게 된다.²⁹⁾

28) 유사한 사례에 대해 다음을 참조. 김래은, 앞의 글; 임순희, 앞의 책; 최대석·이상숙, 『북한의 대학 생활과 새세대의 가치관』, 『북한주민의 일상생활과 대중문화』, 오름, 2003.

29) 남성들의 경우는 입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이 주된 영화의 소재로 다루어졌지만 여성인 경심(〈붉은 감〉, TV, 2부작, 1998), 향순, 경심의 경우는 입대와 함께 초년병으로, 초임 군의관으로 근무하며 좌충우돌하는 과정이 주로 다루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군대에서의 실질적인 쟁

노동 분야에서도 이들처럼 공명심과 함께 소영웅주의적 발상으로 힘든 부문에 자원 진출했다가 갈등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수업은 계속된다〉에서는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선택과 배치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공부도 잘하고 나름대로의 꿈도 있어 대학에 진학하려는 리영과 선녀는 자강도의 고치농장에 집단진출하자는 남학생인 강범과 충돌하기에 이른다.

강범: (책가방을 바닥에 팽개치며) 에이……. 나가! 나가! 우리랑 같이 고치 농장에 가든지 아니면 이 교실에서 썩 나가!

선녀: (다른 여학생들은 모두 겁먹고 움츠리는데) 우리가 왜 나가야 하니? 난 고치농장에도 가지 않고 교실에서도 나가지 않겠어!

강범: 뭐라구!

선녀: 우리가 왜 고치농장에 가야 하니? 우리는 어떻게 하나 대학에 붙자고 남들 쉴 때도 쉬지 않고 이악하게 공부했단 말야. 그런데 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도 못 가구……. 으 씨…….

강범: 아 요게 아직 대꾸할테야!

허철: 강범이 뭘 그래, 진정하라. 각자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 우리가 고치농장으로 가는 건 어디까지나 탄원이지 강요가 돼선 안 되잖아.

강범: 그래? 그럼 네 입장은 뭐가?

허철: 글썄, 고치농장으로 가고 싶은 동무들이야 가야지. 하지만 학급이 무조건 다 같이 가자는 건 나도 반대다.

대화에서 보이듯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단진출에 반대 입장인 남학생 허철도 친구들에게 오해를 받고 갈등하게 된다. 이때 복미관계가 악화되

더 비울 때문에 생기는 차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경실이 여성중대인 고사포중대로, 향순이 칠길관리 임무를 주로 하는 산골초소로 배치되고, 경심이 군의관이라는 부분도 실제 군대의 직무상 젠더 특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경심에게는 희생된 영웅의 자녀들을 돌보는 책임까지 맡겨진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영권, 『영화 〈복무의 길〉에 나타난 선군시대 북한의 여성과 가부장적 온정주의』, 『현대북한연구』 Vol.17 No.2, 북한대학원대학교, 2014 참조.

어 위기가 조성되었다며 일부 남학생들은 군 입대를 선택하게 되고 나머지 학생들이 농장으로 가게 된다.³⁰⁾ 이처럼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집단 진출하는 사례들이 많이 소개되고 그것에 감동받아 자원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집단적 분위기로 인해 자율성을 침해받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강범(<수업은 계속된다>)을 비롯한 남학생들은 무조건 다 함께 진출해야 한다고 강요하는데 여학생을 비롯한 일부 학생들은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데서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엿볼 수 있다. 중학교 담임교원인 윤실은 다음과 같이 진지하게 전망을 고민하지 못하고 일시적 충동으로 선택하는 것과 함께 학생들의 환경과 지향이 서로 다른데 집단진출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다.

학생들은 지금 일시적인 흥분에 들떠 있습니다. 그 어떤 시대적인 자각이나 자기들의 운명에 대한 높은 리상을 안고 탄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 학급동무들과 헤어지고 싶지 않고, 더욱이는 남들이 탄원한다니까 우리도 탄원해서 선생님들을 기쁘게 해주자는 식의 허영심도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을 당연한 권리요 의무로 귀히 여기며 직업의 귀천이 없음을 강조하는 북한이지만 여전히 직업을 가리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 광옥(<이어가는 참된 삶>)은 좋은 성적을 바탕으로 촉망받는 연구사가 되려하지만 오빠인 광일은 이를 못마땅해 한다. 광옥은 오빠에게 직업조차 대를 이어야 하느냐고 따지고 광일은 광옥의 정신상태가 글렀다고 타박한다. 이들의 다음 대화를 통해 이러한 청년들을 인식하고 교양하고자 하는 당국의 고민이 엿보이며, 광옥의 대사 속에서는 영웅의 자녀라는 우월감도 엿보인다.

30) 처음에 선녀와 리영은 상급학교에 추천을 받아 명단에서 제외되어 기뻐하지만 결국 이들은 고치농장에 가게 된다. 리영은 농장에 자원한 학생들에게 여러 혜택이 많아 후에 김일성종합대학에도 갈 수 있을 거라는 친구 준경의 설득으로, 선녀는 대학 시험을 보러 가지만 친구의 장난인 거짓연애편지 때문에 시험을 망쳐서 농장으로 가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광옥: 그래 오빠 내가 순정이처럼 평생 농사를 짓길 원한단 말이에요?
광일: 난 니가 농사를 짓든 과학을 하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문젠 니 머리가 달라지고 있어!
광옥: 오빠의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오빠 지금 농사꾼의 자식은 농사를 짓고 탄부의 자식은 대를 이어 탄부가 되어야 한다는 걸 나한테 납득시키자는 거지요?
광일: 허튼 소리 말아! 순정이란 처녀는 뭐 너보다 못해서 평양에서 여기로 탄원해 왔겠니?
광옥: 그 앤 우리 집과 처지가 다르단 말이에요, 다 제 목도릴 써서 그런 거지 뭐. 난 그 처녀가 우리 영웅가정에 들어와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어요. 우리 집안 핏줄에 그런 유전인자가 섞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광일: 그만해! 어머닐 진심으로 돕는 그 깨끗한 처녀를 모욕하다니, 이제보니 우리 집안에 진짜 필요 없는건 바로 너야. 우리 집안은 군인정신만을 인정해, 그 뜻을 따르지 못하겠으면 썩 사라져! 당장 평양에 올라가 짐을 싸서 내려와, 그런 머리통을 가지곤 과학은커녕 아무것도 못해!
광옥: 난 내려오지 않겠어요, 난 싫어요. 어머니는 귀하지만 어머니의 그 고달픈 인생은 답습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낸 광옥은 안정된 직장과 단란한 가정을 꿈꿔왔다.³¹⁾ 반면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순정은 서진주를 보며 부끄러워하는 엄마에게 영웅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군에 입대했던 것이다. 그리고 제대한 후에는 서진주의 농장으로 자원해 와서 집안 배경도 숨기고 힘든 일을

31) 대학시절 노력동원에 빠졌다가 어머니께 혼나고 뺨을 맞을 때 광옥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영웅의 딸은 꼭 이렇게 늘 괴롭게 살아야 하나요? 남들은 이렇게 안 살아요 부모의 로고로 다 잘 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우리 집안에선 왜 자꾸 날 보고만.(울음) 어려서는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고 자라고 방학 때 집에 가면 엄마도 없는 빈집에서 밥도 못 먹고 홀로 쪽잠만 잤는데. ……이제 와서 또 그때의 엄마처럼 살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가정의 행복이 있어요! 어머니가 겪은 고생만도 가슴이 아픈데. 싫어요! 싫단 말이에요!”

도맡아 하려 한다.

명심(<시대는 축복한다>)은 자신을 걱정하는 어머니에게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 한때 고생하고 오겠다는 식으로 얘기한다.

어머니: 동굴 해설강사가 된다고? 무슨 소리냐,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연구원에 간다, 박사가 된다 떠들어대더니?

명 심: 나도 다 생각이 있어요.

어머니: 생각은 무슨 생각, 이제 동굴귀신이 되지 별 수 있나.

명 심: 어머니도 참, 강사라는 건 처녀시절 한때란 말이에요. 게다가 인적 없는 그 심심산골에 일생을 묻을 처녀가 어디 있겠어요.

명심의 친구이자 동료인 송이 또한 “솔직히 난 여기로 올 때 온 나라가 다 아는 해설강사가 되구 또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영광의 그 순간도 그려 보았어”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러한 공명심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과학원 연구사가 되기까지 락원³²⁾에서 경력을 쌓으려는 정심(<오늘의 10명 당원>)은 한껏 들떠서 영웅이 되겠다는 포부를 얘기한다.

우리 할아버지도 락원은 인격수양의 대학이라고 하셨어요. 아마 신포항 당원의 이름 뒤에 내 이름을 쓰게 될지도 몰라요(웃음). 그러자면 10명 당원의 무엇을 닮아야 하는지…….

그런가 하면 미래를 약속한 애인까지 외면하면서 자신의 길을 선택한 옥주(<기다려지는 사람>, 2004)도 있다.³³⁾ 옥주를 설득하는 아버지의 대

32) 북한에서 평안북도 ‘락원기계연합기업소’는 ‘락원의 로동계급’이라 하여 노동자의 모범사례로 칭송되고 있다.

33) 옥주를 설득하러 기숙사에 찾아간 아버지의 눈에 비친 옥주의 방은 화사하게 꾸며져 있다. 마치 안락한 삶을 바라는 옥주의 지향을 말하는 듯하다. 옥주는 벽거울 앞에서 꽃무늬 분홍색 스웨터를 걸쳐보며 카세트에서 울려나오는 경쾌한 노랫소리에 맞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다. 그리고 침대커버와 커튼도 꽃무늬로 구색을 맞추어 잘 꾸며놓았다.

사를 통해 당 간부의 자녀를 설득하고 훈계하려는 당의 의도가 잘 드러난다. 아버지는 성남과 같은 훌륭한(농촌에 자원해 들어온 제대군인) 청년을 마다한 건 옥주의 이기심 때문이라고 비난한다. 그리고 농업대학을 졸업한 옥주 같은 인재가 농촌위원회보다는 농촌 현실에 더 필요하니 고향으로 내려오라고 설득하지만 옥주는 받아들이지 못한다.

옥 주: 아버지, 솔직히 도에 배치받고 보니 나라는 존재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부임 인사하던 날, 위원장동진 저더러 앞날이 촉망된다고 하셨어요, 또 일을 시작하고부터 포부도 커지고 뭔가 큰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심도 생기고..

아버지: 응 여성간부가 되겠다.

옥 주: 저라고 못할게 뭐예요. 아버지 절 이해해 주세요. 다른 요구라면 뭐든 다 따르겠어요, 하지만.....

아버지: 나에겐 다른 요구는 없다, 단지 네가 고향으로 내려왔으면 하는 것 뿐이다.

옥 주: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 말씀 거역한 적 없어요. 하지만 고향으로 내려오라는 건.....

아버지: 너, 끝내 못 내려오겠다? 그만큼 말했는데도, 꿈에도 상상 못했다. 당 일꾼의 자식인 네가 허영에 들떠 고향 땅에 등을 돌려대고 고향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면, 당 일꾼 나 개인보다도 우리 당의 용상이 흐려진다는 걸 넌 몰라?!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딸자식한테 배반을 당하다니, 어쩌면 네가! 내겐 너 같은 딸이 없다!

한편 수련(<한 녀학생의 일기>)은 글재주와 함께 컴퓨터 등 과학에 재능이 있는 중학교 졸업반 학생이다. 수련의 아버지는 과학원 연구사로 집에 거의 오지도 못할 정도로 일에 열심이지만 박사학위도 없고 사회에서 알아주지도 않는다. 친구의 아버지가 박사학위를 받아 신문에 이름이 오

르고 집에 박사증과 상패 등이 장식되어 있는 걸 부러워하던 수련은 아버지가 박사가 되면 시키는 대로 과학을 전공하겠다고 한다. 할머니도 수련을 거들고 나서지만 아버지는 잘못된 생각이라며 설득하려고만 한다.

아버지: 수련인 내년도 졸업인데 어떻게 하려니?

수련: 지금 생각 중이에요.

아버지: 음, 결심된 줄 알았는데?

수련: 아버지, 새는 바라볼 하늘이 있어 마음껏 날고 기차는 곧바로 갈 수 있는 철길이 있어 힘차게 달리지요?

아버지: 수련이 컸구나. 그래.

수련: 난 아버지가 박사만 되면 아버지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아버지: 흠, 과학은 꼭 박사가 되겠다고만 하는 게 아니다.

할머니: 왜 박사가 되면 좋지, 같은 값이면 나쁠 게 뭐야.

아버지: 좋다 아버지가 박사 못된 값은 후에 값도록 하자, 대신 수련인 지금 결심을 명백히 가질 때가 아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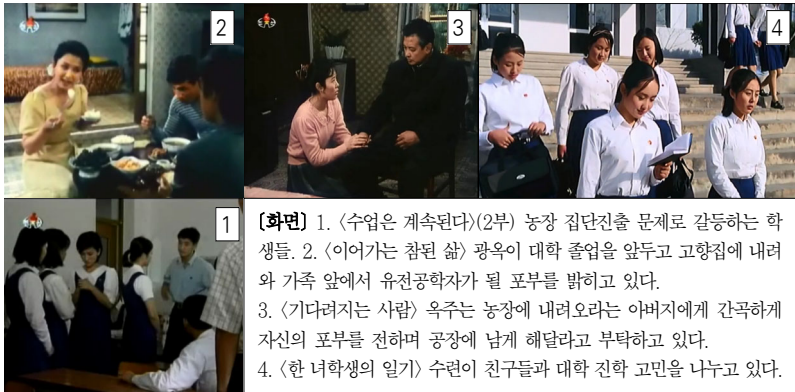
수련: …….

할머니: 자 외삼촌이 나서겠다는데 거기다 말기련.

아버지: (부인을 보며) 처남이 나선다는 데가 어디요? 작년까지만 해도 리상이 확고했는데, 잘못 나가려고 한다. 수련이, 쓸데없는 생각 말고 명심해라, 앞으로 과학을 몰라가지고는 못 살아.

주목되는 것은 아버지들의 태도가 시기별 작품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뒤로 갈수록 비난의 수위가 낮아진다. 옥주의 아버지가 단호하고 강하게 비난하는 반면 수련의 아버지는 한 마디로 당부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리고 장군님과 당을 언급하며 이어지는 장황한 설교와 강한 비난과 함께 광옥이 오빠의 죽음, 옥주가 아버지의 목숨 건 임무 수행 등의 충격적인 계기를 통해 긍정인물로 거듭나는 데 반해, 수련의 경우는 설교보다

는 직접 자신의 눈으로 아버지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보고 깨닫는 식으로 좀 더 자연스런 개연성을 보이게 된다. 특히 수련의 항변 속에 ‘아버지’에 대한 간접적인 비난도 내비치고 있으며 수련을 설득하기 위해 ‘장군님의 노고와 당의 은혜’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수련의 물질적 풍요에 대한 욕구가 부정적으로 묘사되지 않는다는 점 등은 당시 큰 변화로 볼 수 있다.



4) 오만하고 자만심에 빠진 남성

남성의 경우 중학교를 졸업하는 시기의 인물을 다룬 작품은 대부분 군대 입대 과정을 그린 것이다. 북한에서 ‘첫째가는 공민적 임무이자 공민의 가장 숭고한 삶의 요구’는 군사복무다. 김정일 시기 선군정치가 강조되면서 이 의무 또한 더 강조되었다.³⁴⁾ 관련 작품들은 군 입대를 당연시여기지 말고

34) 김정일, 『공민적자각을 안고 공화국공민의 본분을 다해나가자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2002년 9월 5일, 8일)』, 『김정일선집』 제15권,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오늘은 선군 시대이며 선군시대의 첫째가는 공민적임무는 조국을 보위하는것입니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생명 보다 더 귀중한것이 조국입니다. …(중략)… 자기보다 조국의 운명을 먼저 생각하며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보위하는 사업에 헌신하는것은 공화국공민의 가장 숭고한 삶의 요구로 되여야 합니다.”

군인정신을 옳게 이해하고 준비하라고 경고하는 것이다. 이 작품들은 입대하는 청년들의 마음가짐을 문제 삼고 있고, 그들의 모습은 여성들에 비해 자만심, 오만함 등이 강조된다. 그러한 모습은 영웅의 자녀라거나, 군인이 될 만한 성적 또는 신체적 조건을 갖추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영길(《위훈의 길》), 경남(《고향산천》), 진호(《어머니의 행복》) 등을 들 수 있다. 영길은 전사한 주철웅 영웅비행사³⁵⁾의 아들에게 성적도 우수하기에 자신의 입대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영길에 대한 주위 친구들의 부러움도 정훈혁 교장의 거둬드는 입대보류 지시에 의해 조롱으로 바뀌게 된다. 영길은 이유를 알 수 없어 반항심만 깊어 간다. 영길은 자신을 타이르는 어머니한테 “전쟁까지 나갔다면 영웅은커녕 한 팔만 잃고 돌아온 주제에… 이게 다 그 외팔이교장 때문이란 말예요!”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다 뺨까지 맞게 된다. 교장이 영예군인이 된 사연이나 주철웅을 비롯한 여러 제자들의 사연이 연이어 펼쳐지면서 영길과 영길처럼 입대를 하지 못한 ‘낙오생’들이 교화되어 간다.

경남은 신체검사 등 군 입대를 위한 심사를 보기 전날에도 열심히 농사일을 하는 친구 순민과 달리 ‘전쟁영웅’이 될 꿈에 부풀어 우쭐대며 다닌다. 하지만 자신만만하던 경남의 예상과 달리 시험 감독관의 질문은 살고 있는 고장과 농사일에 대한 내용이었다. 경남은 은근히 무시했던 순민이 합격하는 반면 자신이 떨어져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다.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감독관을 찾아가 항의를 하는가 하면 체력검사를 다시 받기까지 한다. 경남은 결국 자기 마을 출신 전쟁영웅인 차원석에 대한 얘기에 감화를 받게 되고 깊이 반성하여 그간 무시했던 농사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진호도 경남처럼 자신의 입대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자신의 세 형들처럼 군에 입대하여 위훈을 쌓겠다고 입대 날만 기다리는 중이다. 다니던

35) 실제 인물인 김영조 영웅을 암시하는 듯하다. 김영조의 실화를 다룬 〈비행사 김영조〉(1998)도 있다.

직장인 도 체육단도 마음대로 나가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 술 마시고 놀러 다니기만 한다. 진호를 보다 못한 어머니가 돌격대 건설장에 억지로 보내려 하자 진호의 반발이 거칠다.

진호: 왜 망신시키지 못해 그래요? 난 안 가요!

어머니: (묵묵히 진호의 짐을 싸고 있다.)

수현(사촌동생): 거기 가서 일도 하면서 자신도 개조하고…….

진호: 뭐? 개조? (어머니를 향해) 군대에 나가기 전에 동무들을 만나는게 무슨 잘못이라고 그래요? 큰일이나 난 것처럼. (고개를 돌리며) 난 싫어요!

진호는 군부대 동원부장까지 찾아가서 하소연해 보지만 오히려 꾸중만 듣게 된다. 마지못해 돌격대 건설장에 가게 되지만 계속 불만을 가지고 일은 뒷전이다. 급기야 그런 자신을 훈계하는 사촌여동생을 밀쳐서 다치게 하는 바람에 인민보안서까지 끌려가게 된다. 이때 어머니는 보안원을 찾아와 사죄하며 진호가 “구실을 못할 것” 같다고 말하고, 진호는 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아 더 어긋나버린다. 결국 큰형이 병사들을 구하고 사망하면서 영웅 칭호를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고, 소아마비 장애를 가진 동생을 입대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반성하게 된다.

이 작품들을 통해 남성이 군복무경력을 쌓지 못할 경우 사회적 분위기나 혜택 등에서 각종 차별이 있으리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입대가 어려운 영길이나 ‘낙오생’이 된 친구들은 고개를 푹 꺾은 채 주눅들고 열등감에 빠져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연이은 입대 보류에 침울해하는 영길과 평소 영웅의 아들인 영길을 선망하던 친구들이 선생님께 “선생님, 제자를 위해선 하늘의 별이라도 따는 게 스승이라고 하던데 제발 영길이만이라도 군대에 내보내 주십시오, 예? 영길인 요새 뜬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며 부탁하는 모습이 애뜻하다. 영길과 같은 영웅자녀가 선민의식을

가질 수 있는 주위환경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군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남성들에게는 큰 제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소아마비 장애로 군 입대가 힘들어 좌절하는 진호 동생 경호(〈어머니의 행복〉)나 삼촌으로부터 군에 가지 못해서 집안망신 시킨다는 핀잔을 듣는 복만(〈기다려지는 사람〉)의 사례도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군이 입대를 앞둔 남성들을 문제 삼는 영화를 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작품들을 통해 청년들의 의무로 군사복무를 독려하면서도 그들을 못미더워하는 심경이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 이는 남성들로서는 10대 후반의 청소년들이 10년 남짓한 의무복무제 속에 있으며, 여성들로서는 입당 등 더 나은 진로를 위해 군복무를 선택한다는 실제 현실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작용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남성이든 여성이든 입대 동기의 순수성을 나무라는 것은 실제 군부대 병사들의 정신 상태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것이다.

질풍노도의 시기로 불리는 10대 후반의 청소년들에게는 쉽지 않은 문제다. 신중한 고민 끝에 자신의 적성 및 희망에 따라 선택하기보다 출신성분에 따라 또는 당 정책에 따라 사회에 진출하여 본격적인 농장 및 직장생활을 하거나 군에 입대하여 적응해 나간다는 것이 수월하지 않을 수 있다. 영화는 바로 이런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혁명적 군인정신의 모범전형으로 항일세대와 전쟁영웅에 대한 환상과 선망을 조장하고,³⁶⁾ 입대 과정에서 차등을 두어 경쟁을 유발한다. 어떤 출신성분이든 얼마나 힘들고 외진 곳에서도 충성의 한 마음으로 당 정책에 따라 헌신적으로 일한다면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다고 청년들의 공명심과 소영웅주의를 자극하는 것이다. 입대 전 혁명적 군인정

36) 예를 들어 〈위훈의 길〉에서 영길에게는 1990년대 영웅인 아버지가 있지만 영웅아들로서의 자만심에 주의를 주기 위해 소년빨찌산 영웅인 용범을 비롯해 안호섭, 강대걸, 정훈혁과 같은 전쟁 시기 영웅들의 사연들을 연이어 들려준다. 경남(〈고향산천〉)에게는 애항심이 남달랐던 전쟁영웅 차원석을, 향순(〈녀병사의 수기〉)에게는 자녀들에게조차 알려지지 못했던 숨은 영웅이자 자신의 할아버지 지세운과 전쟁노병 박석호를 통해 누구든지 자기 분야에서 영웅이 될 수 있다고 부추기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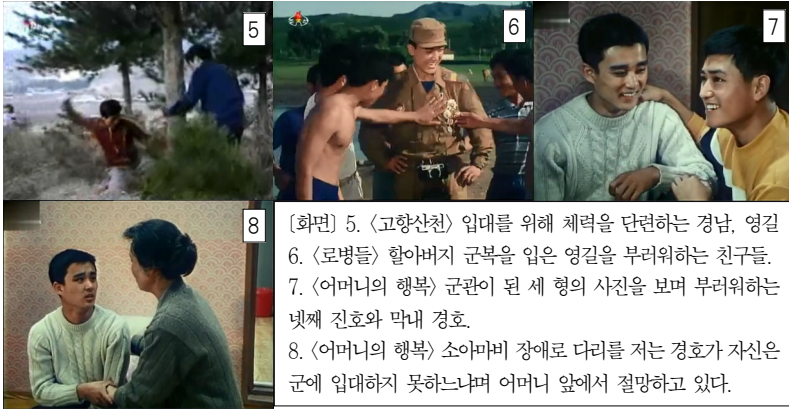
신의 배양을 강조하고 청년들의 정신 상태를 비판하면서도 입대 후에 영웅 심리를 조장하는 이중적인 태도에서 당국의 딜레마가 드러난다. 모범 전형이나 멘토 역할은 대부분 1·2세대의 남성 전쟁영웅이라는 점, 남성 청년의 경우 영웅이 되거나 영웅적 죽음까지 묘사되곤 하지만 여성은 교화의 대상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젠더 차이도 드러난다.

또한 군대에서 10년 이상의 장기 복무를 함으로써 자신의 재능과는 거리가 먼 청년시기를 보내기도 한다(〈기다리는 처녀〉, 〈복무의 길〉). 굶주림 등 생활의 어려움은 군대도 예외가 아니며(〈그가 걷는 길〉), 홀어머니를 남겨두고 온 청년들의 걱정과 결혼적령기 청년들의 애로도 잘 나타난다(〈기다리는 처녀〉, 〈철령의 대대장〉, 〈발걸음〉 등). 이들을 통해 분단국의 안보불안이 청년들의 일상에 얼마나 치명적인 구조적 제약요인이 되는지 알 수 있다.

그런가하면 드물지만 가난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는 인물도 있다. 삼형제 중 막내인 창식(〈가정의 채부〉)은 어려서 부모가 순직하고 사회주의애국열사증을 받은 가정이지만 할머니 슬하에서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왔다. 창식은 그에 대한 불만으로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진로를 모색해 나간다. 창식의 사례를 통해 공장노동자가 벌이나 대우가 변변치 못한 점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식이 무역회사에서 근무하고 싶어 뇌물을 주고 굶은일까지 맡아주면서 쫓아다니는 용재는 한껏 멋을 부리며 사치를 일삼는 인물이다. 직업에서의 귀천, 빈부격차의 현실을 잘 드러내 주는 작품이다.

이외에도 육류관 요리사로 취업한 제대군인 출신의 한기와 홍수(〈육류 풍경〉)가 청년들이 자강도에서 혁신을 이루고 있을 때 자기네들은 ‘아나네들이나 하는 국수떡이나 주무르고’ 있다고 하는데서 직업에서의 성 차별의식도 볼 수 있다. 영화 속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직종은 뚜렷하게 구별된다. 진호(〈청춘의 자서전〉)의 경우는 노동성 부상의 아들이며 기계전문학교 출신이지만 탄탄한 경력을 위해 영대기계공장에 탄원하여 단조직

장에서 일한다. 직장에서도 어머니의 도움과 함께 평정서를 잘 받아 간부 양성기관으로 옮기려고 열성적인 척한다.



5. 나가며: 북한 청년의 사회진출 양상에 담긴 함의

북한 당국은 청년에 대해 혁명위업을 계승할 새 세대로서 국방과 경제 건설 및 사회문화에 이르기까지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무장하여 정권과 체제를 유지 및 강화시키는 주력군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본주의문물에 쉽게 물드는 청년들의 비사회주의적현상을 철저히 반대 배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딜레마로 인해 당국은 더욱 강력한 통제와 함께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보상 등을 제시하기도 한다.

북한 청년은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군 입대, 직장 배치, 대학 진학이라는 세 가지 경로로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 분석한 영화나 TV드라마에서도 확인된다. 이때 영화는 이상적 청년을 통해 군 입대를 위한 자격으로 향토애와 희생정신을 제시한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시급하게 요청되는 부문에 자원하여 진출하며, 대학을 갈 수 있는 혜택을 포기하거

나 가더라도 재능보다는 국가에서 장려하는 주요 분야를 전공하라는 노동정책을 제시한다. ‘출신성분’과 ‘평정서’ 및 ‘자서전’ 등에 기초한 북한 당국의 직장 배치 정책은 청년들의 진로 선택에 결정적인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청년들은 다양한 직업관에 따라 사회진출 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사회적 의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유형이 많다. 이는 사상 교양적 특성이 강한 북한 영화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소위 ‘장군님의 말씀’ 및 당 정책에 따라, 또는 부모의 권유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교화되기 전의 인물의 행위를 통해 체제순응적인 출세지향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로부터 인정받으려는 공명심 또는 향후 진로에 유리한 경력을 쌓기 위해 청년돌격대나 국가적 주요 건설장에 자원하는 것이다.

둘째, 자신의 꿈이나 재능이라는 자아실현 측면에서 고민하기도 한다. 직업의 세습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펼치려 하거나 가난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뇌물 상납 및 비리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셋째, 생계유지 수단이라는 측면은 직접적으로 묘사되지 않고 대외부문 직장인을 선호한다거나 대학진학을 선망하는 것 등으로 좀 더 나은 조건에 진출하길 바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선호하는 배우자감이나 농장이나 탄광, 건설장 등을 기피하는 모습에서는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 외에 성별 직종 구분, 국가의 예체능 육성 정책에 따른 사회진출 양상도 볼 수 있었다.

북한 영화와 드라마에서는 여성들은 주로 개인적인 욕구를 표출하는 모습, 남성들은 주로 군 입대 과정에서 차별 및 배제되는 데 따른 갈등이 묘사되었다. 여성의 경우 가부장적 남성권력의 시선에서 여성들을 사적인 욕구의 존재로 본다거나 여성들이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남성의 경우 군 복무 경력이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출세지향적인 일부 여성들의 경우도 영웅이 되기 위해

군 입대를 선택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 또한 현실의 반영이다.

한편 출신배경 등에 의해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부유층 청년들에 대해 사회적 의무를 강조하는 내용이 많다. 이는 역으로 그러한 차별과 혜택에 따르는 부정부패 등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당국은 정신적·물질적 보상으로 동기를 부여한 후 다시 사회적 의무와 영웅적 희생 정신을 강조하며 체제를 유지·발전시키는데 필요한 핵심계층을 길러내고자 하지만 사상교양만으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또한 청년군인을 사회 발전의 주력군으로 내세우는 방식은 일시적인 난관을 극복하는 데서는 성과가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군사주의문화로 인한 각종 차별과 불평등, 폭력문화 등이 우려된다. 북한 당국이 냉전이 끝난 시점에서도 국제정세를 대결적 관점으로만 이해하여 그들의 기득권과 체제 유지에만 몰두하는 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향후 청년세대로 인한 체제변화의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다.

주목되는 점은 청년의 사회진출에 비중을 둔 영화가 제작된 시기이다. 중학교 졸업반 시절을 다루며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이 담긴 작품은 1997년, 2000년대 초반, 2006년 등에 각각 제작되었다. 특히 북한 정권이 실리개선 정책을 추진하던 2000년대 초반에 군 입대 자격문제를 형상한 작품들이 두드러진다. 이는 그동안 청년들의 변화가 가속되었으며 당국이 그들의 일탈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북한 중등학생의 진로를 분석한 박금주와 소설을 통해 새 세대의 직업관을 분석한 임순희 등의 기존 연구 결과를 재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북한의 공식적인 영상으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영상과 관련한 북한의 문헌 등을 통해 다각도로 접근해볼 수 있는 정책과 양상, 구조와 현실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향후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김래은, 『북한의 '새세대' 특성 연구: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 청년층의 형성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준성, 『북한의 직업, 전망과 남북한 직업 비교』,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07.
- 민성길, 『통일과 남북청소년』,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 박금주, 『북한 중등학생의 진로결정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박아름, 『북한의 '새세대' 이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 박정란, 『여성 새터민의 직업가치와 진로의사결정과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서정남, 『서정남의 북한영화탐사』, 서울: 생각의 나무, 2002.
- 성창권, 『'고난의 행군 세대'의 정치의식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사회문화언론전공 석사학위논문, 2008.
- 안지영, 『2000년대 북한영화 속 일상생활에 나타난 여성상』,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_____, 『김정일 시기 북한영화의 젠더 담론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오성배 외,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연구.3,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실태와 정책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 이달곤 외, 『통일시대의 북한근로자 직업훈련』, 파주: 법문사, 2008.
- 이명자, 『북한 영화와 근대성: 김정일시기 가족멜로드라마』, 서울: 역락, 2005.
- _____, 『북한영화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 _____, 『〈우리집 문제〉를 통해서 읽는 북한 중산층의 제2사회』, 『통일문제연구』 Vol.19 No.2, 평화문제연구소, 2007.
- _____, 『북한영화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 _____,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영화에 나타난 혁명적 낭만주의와 리얼리즘의 긴장관계: 〈녀병사의 수기〉, 〈한 녀학생의 일기〉의 고백의 내러티브 전략을

-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Vol.31 No.3,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 _____, 『영화로 만나는 남북의 문화』, 서울: 민속원, 2009.
- 이요행,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의식 및 직업지도 실태: 북한이탈주민의 효과적인 직업 상담을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2002.
- 이인정, 『1980년대 이후 북한 '새세대'의 가치 변화 연구: [청년전위]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민윤리교육과 박사학위논문, 2004.
- 이인정·이은숙,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과 조선민주여성동맹』,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 임순희,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5.
- _____, 『북한 새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6.
- 임옥규, 『2000년대 북한 문학 감성과 새 세대의 감수성』, 『현대북한연구』 17권 2호, 북한대학원대학교, 2014.
- 전영선, 『북한 사회의 정체성과 북한 영화: 청소년 영화와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Vol.28, 한국언어문화학회 편, 2005.
- _____, 『북한영화 속의 삶이야기』, 서울: 글누림, 2006.
- 전영선·이명자 외, 『북한영화 종합정보망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1, 2000~2006년 북한 영화 및 텔레비전 드라마 정리』, 영화진흥위원회, 2007.
- 정영권, 『2000년대 초반 북한 영화와 청년세대-청년 과학자와 '청년동맹' 형상화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34권 1호,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15.
- 정은찬, 『북한의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정태윤, 『인간과 직업윤리』, 서울: 문경출판사, 1990.
- 조정아,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통일연구원, 2006.
- _____, 『김정은시대 북한 교육정책 방향과 중등교육과정 개편』, 『통일정책연구』 23권 2호, 2014.
- 조정아 외,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통일연구원, 2013.
- 진희관, 『Post-김정일시대의 후계구도 전망을 위한 문헌분석 연구-김일성시대의 후계구도와 비교를 중심으로』, 『안보학술논집』 20집, 1호,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09.
- _____, 『점점 희미해져가는 '김일성'과 '김정일'』, 『시사저널』 1317호, 2015.

- 최귀옥, 『북한출신 대학생의 직업세계 인식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여성인적자원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최대석·이상숙, 『북한의 대학생들과 새세대의 가치관』, 민화협 정책위 편, 『북한주민의 일상생활과 대중문화』, 서울: 오름, 2003.
- 최종태·김강식, 『북한의 노동과 인력관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통일부 정보분석국, 『북한주민의 직업세계』, 통일부, 2001.
- 편송경, 『북한이탈청소년의 진로의식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북한 자료〉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4차 초급일군대회 진행,” 대회참가자들에게 보내는 김정은 서한 《로동신문》 2014.9.20.
- “조선청년들 인민경제 어렵고 힘든 부문에 진출·혁신 창조,” 《조선중앙통신》 2012.8.22.
- 김정일, 『김정일선집』 제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김정일, 『김정일선집』 제1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 임설경, 『청년동맹을 선군시대의 청년전위조직으로』, 《청년전위》 2007.8.29.

Abstract

A Study on the Social Advancement of the Youth
through the North Korean Movies and TV Dramas

Ahn, Ji Young
Chin, Hee Gwan

In this study, through the North Korean movies and TV dramas, it was analyzed for the social advancement of the North Korean youth. First, the process of labor policy has been the implementation of the authorities, the second, was to guess the social advancement of the reality of young people in it. In labor policy conditions under which North Korea authorities to post a job, young people are seeking social advancement based on various vocational sense. Was first Mashi young shock troops and major national construction chapter resources to for to gain an advantageous career in ambition and outlook. To the second, while criticizing the occupation of hereditary, you can try to broaden his talent, also I was able to commit fraud in order to get out from the reality of poor people. It is possible to also see differences in gender. Women, is a state in which expose the mainly personal desire. Men, mainly the conflict are eliminated and discrimination in the military enlistment of the process was drawn.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9호

주제어: 북한영화(North Korean Movie), 북한TV드라마(North Korean TV Drama),
북한 청년(North Korean Youth), 사회진출(Social Advancement), 진로결정(Career
Decision)

논문 접수일 2015. 07. 07. | 논문 심사일 2015. 07. 21. | 게재 확정일 2015. 08. 11.